

2023 추석 가정예배

*영상에 따라 함께 예배드리시면 됩니다

예배 순서

예배인도: 허요환 목사

환영 -----

인사

찬송 -----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찬8장) -----

다 같이

성경봉독 ----- 누가복음 17:11-19 -----

인도자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설교 -----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

허요환 목사

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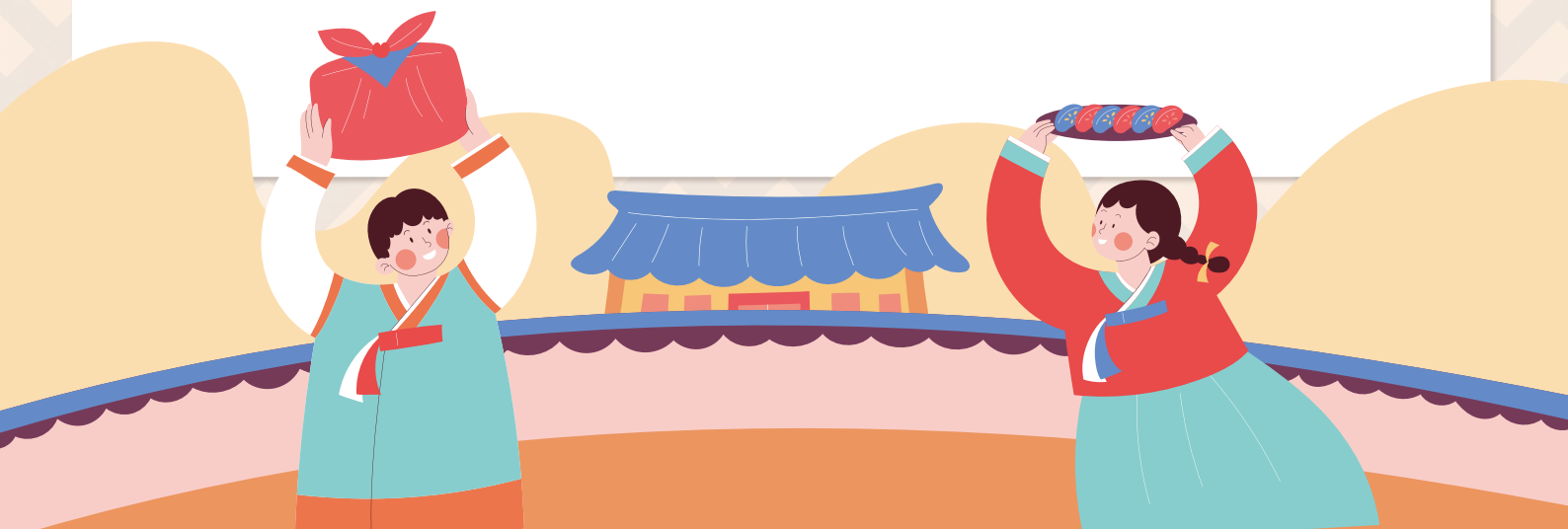
허요환 목사

찬송 ----- 저 밭에 농부 나가(찬591장) -----

다 같이

축도 -----

허요환 목사



[추석 가정예배 설교문]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누가복음 17:11-19절

2023년 추석 명절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예수님의 여행 경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북쪽 지역인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인데,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명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십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병 환자 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은 부정하다는 이유로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외쳤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주님 귀에 들렸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피부와 뭉그러진 손과 발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줘라.”

이것은 구약 율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니까, 어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은혜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들은 떠났겠지요.

그런데 15절에 의하면 열 명의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 가던 길에, 한 사람이 자기 피부가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흉터가 사라지고 새살이 돌아서 건강하게 된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1분이라도 빨리 제사장을 만나 완치 판정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헌데 이 사람은 갑자기 가던 길을 돌아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예수님 발아래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먼저 감사

를 표현하려고 돌아왔습니다. 열 명 중 이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제사장에게 가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께 먼저 왔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알려줍니다(16절).

여기서 ‘감사’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우선 다른 아홉 명의 환자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큰 잘못을 했나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 다. 모두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의 행동만 달랐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해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두 번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18-19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또 다른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복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아홉 명은 치유의 기적은 경험했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치유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는 눈,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입술, 그게 합쳐지면 감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추석을 보내며 감사할 수 있는 눈과 입술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